

# SK(주), 글로벌 '에너지 영토' 무한 확장

SK(주)가 북미 셰일원유·가스 G&P(Gathering & Processing) 기업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확장을 가속화한다. SK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글로벌 에너지 사업 강화와 동시에 '글로벌 투자전문지주회사'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SK(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북미 셰일원유·가스 G&P 기업인 브라조스 미드스트림 홀딩스(브라조스)에 2억5000만 달러(27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지분 투자는 SK(주)미국법인인 플루투스캐피탈을 통해 진행된다.

SK(주) 측은 "고유가에 따른 셰일가스 발굴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생산지인 퍼미안 지역의 고성장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사업확장과 수익확보가 가능해졌다"며 "기존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SK 북미 사업의 주요 수입원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P사업이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모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송하는 개더링과 이송된 천연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운송·판매하는데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프로세싱 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SK(주)가 유레카에 이어 브라조스 투자를 통해 미드스트림을 강화하면 SK그룹 내 사업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자원채굴·생산(E&P) 활동인 업스트림 사업은 SK이노베이션이 적극 추진 중이며 다운스트림인 수송·판매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담당하고 있다.

북미 셰일원유·가스 G&P 브라조스에 2.5억 달러 투자 투자전문지주회사 입지 강화 그룹 내 사업간 시너지 기대

브라조스사는 2015년 설립됐으며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에 위치한 셰일원유 및 가스 G&P 전문 업체다. 고정수수료 계약이 매출의 80%가 넘어 오일과 가스 가격에 따른 수익 변동 리스크가 낮고 평균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보유해 사업안정성이 높은 대표적 우량 기업이다.

특히 특정 지역 내 생산 물량에 대한 독점적 처리 권한과 다수의 우수 고객을 보유해 설립 3년 만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브래저스 지분 인수 경쟁에는 글로벌 사모펀드, G&P 전문업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70여 개 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조스사가 있는 퍼미안 분지는 북미 최대(45%) 셰일오일 생산지로 2014년 유가 폭락 후 저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유정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유일한 곳이다. 이 지역의 셰일원유 및 가스 생산량은 2025년까지 연 평균 13%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SK(주)는 작년 유레카 지분 투자를 통해 북미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인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주 마르셀러스-유티카분지에 이어 퍼미안 분지 G&P업체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 확장에 있어 유리



SK그룹 계열 투자전문 지주회사인 SK(주)가 북미 셰일원유·가스 G&P(Gathering & Processing) 기업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확장을 가속화한다. /뉴시스

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SK(주)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사업 확장을 통해 밸류 업을 지속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주)의 지난해 투자액 1조5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시장에 투자했으며 동남아 1위 카세어링 그룹과 브라조스사 투자 등 올해에도 글로벌 투자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현대·기아차

### 미래차 기술 선도할 발명가 발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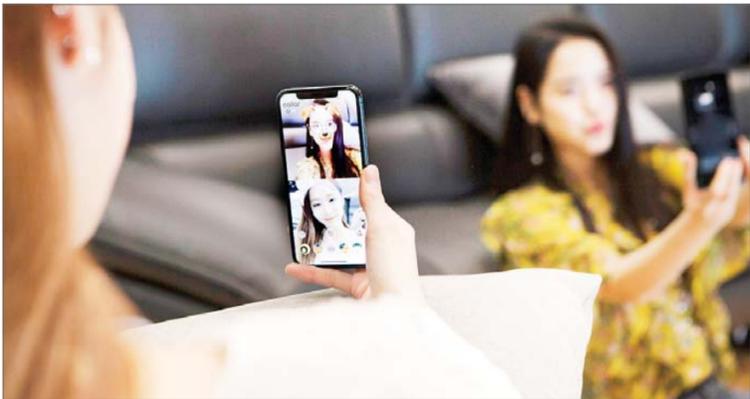
사내대회 '인벤시아드' 개최

현대·기아차가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도할 '발명가' 발굴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18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발명의 날 행사의 하나로 사내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인벤시아드'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매년 여는 행사다.

대회 결과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임정욱 책임연구원이 주행상태 표시 램프로 대상을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출품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특허출원할 계획이며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향후 양산차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모델이 SK텔레콤은 T전화 내 AR(증강현실)영상통화 서비스 '콜라(callar)'를 이용하고 있다./SK텔레콤

## AR 영상통화 '콜라' 통화 1000만건 돌파

(출시 한 달 반만에)

SK텔레콤 화상 AR 꾸밈효과 인기 아이폰-안드로이드폰 간 통화 가능

SK텔레콤은 지난달 초 선보인 T전화 내 증강현실(AR) 영상통화 서비스 '콜라(callar)'의 누적 통화 건수가 출시 한 달 반만에 1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콜라'는 전화를 건다는 의미의 'call'과 증강현실을 의미하는 'AR'의 합성어다. '콜라' 이용자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47개의 AR 꾸밈효과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에도 통화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자체 분석 결과 '콜라' 이용자들은 일반 영상통화를 사용할 때보다 2~3배 더 길게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양한 AR 꾸밈효과를 사용하면서 영상통화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한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퇴근시간인 오후 5~8시에 부모와 영상통화를 가장 활발히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빠보다 엄마에게 2배 이상 더 많이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과 20~30대는 주로 통화하는 대상의 성별이 서로 달랐다. 중·고등학생은 동성 또래간 통화 비율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20~30대는 이성간 통화 비율이 68%로 더 높았다.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콜라'를 주로 자녀·손주와의 소통에 활용하고 있었다. 55세 이상 '콜라' 이용자의 전체 통화 중 65%가 자녀·손주와의 통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콜라' 이용 시간은 일반 영상통화 사용 시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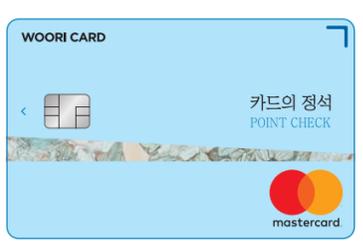
전 연령층에 걸쳐 '콜라' 이용이 가장 활발한 날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의 '콜라' 이용량은 다른 요일 대비 평균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



포인트는  
목직해야  
정석

(대상:수고했어, 오늘도) 한국화가 김연경 작

기본 특별 추가 포인트가 모이고 또 모이는 카드



· 기본·특별·추가 적용: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 · 연회비 없음  
·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홈페이지(www.woori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 심의필 2018-A00360 (2018.03.23/유효기간: 2019.03.01)

